

보도시점 2026. 9. 7.(월) 06:00 (월요일 석간) 배포 2026. 9. 4.(금)

국가와 유역을 잇다... 제3기 유역물관리위원회 본격 가동

- 9월 7일 제3기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촉식 개최, 4대 유역 민간위원 91명 위촉장 전수
- 국가·유역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 추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민간위원장 김좌관)는 9월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3기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 간 연계와 협력을 바탕으로 유역 중심의 통합물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을 마친 데 이어, 8월 21일 4개(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 91명이 위촉되면서 국가와 유역을 아우르는 제3기 물관리위원회 체계가 갖춰졌다.

이번 위촉식은 새롭게 위촉된 유역 위원들의 활동 시작을 알리고, 국가와 유역간 물관리 정책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좌관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새롭게 위촉된 4대 유역 민간위원 91명에게 위촉장을 건넨다.

제3기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물관리 정책에 반영하고, 국가의 정책 방향을 각 유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는 등 국가 물관리 정책과 유역 현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최근 기후위기로 극한 홍수와 가뭄이 일상화되고, 첨단산업 성장에 따른 새로운 물 수요가 증가하는 등 물관리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발전 및 농업 용수를 아우르는 통합관리 등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올해 말까지 정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와 유역의 물관리 정책이 긴밀히 연계되도록 하고, 각 유역이 당면한 다양한 물문제에 대해 지역의 여건과 이해 관계를 고려한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유역마다 자연환경과 물 이용 여건이 서로 다르고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해법 역시 다양한 만큼, 통합물관리는 유역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가 중요하다”라며, “유역물관리위원회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물관리 협치(거버넌스)를 이끌며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좌관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이제 중요한 것은 국가와 유역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함께 움직이느냐”라며, “유역의 목소리가 국가 물 관리 정책으로 이어지고, 국가의 정책이 다시 유역의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유역을 잇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3기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촉식 개요. 끝.

담당 부서	물관리위원회 지원단 기획운영팀	책임자	팀 장	정수명 (044-201-8910)
		담당자	사무관	박문구 (044-201-8914)

□ 목적

- 제3기 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26.8.21)에 따른 민간위원 위촉식 행사 개최

□ 세부운영(안)

- (일시/장소) `26.9.7.(월) 17:00~18:00 /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장
 ※ 위촉식 전 유역별 회의 개최(15:00~16:30), 주요내빈 사전차담(16:40~16:55) 예정
- (참석대상) 국가위(김좌관 민간위원장, 간사 등), 유역위 공동위원장 (당기후부 장관, 민간위원장) 및 위원(당연직*, 민간) 등 150여명
 * 지방정부, 관계부처 소속공무원, 공공기관(수공, 공단, 농공, 한수원) 등
- (주요일정(안))

시간		주요내용	비고
~17:00		■ 참석자 등록 및 개회 ※ 주요 내빈 사전 환담 예정(16:40~16:55)	사회 : 지원단장
17:00~17:10	10'	■ 인사말	국가위 위원장, 기후부 장관 등
17:10~17:50	40'	■ 위촉식 수여	수여 : 국가위 위원장
17:50~18:00	10'	■ 기념사진 촬영	유역별로